

가주 한인후보 10명 ‘열기 속으로’^{10/1/10 368}

강석희·미셸 박 등 지원 캠페인 달아올라

내달 2일 치러질 캘리포니아주 선거를 위한 우편투표 신청서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되면서 가주도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3면>

이번 선거에는 재선에 나온 미셸 박 조세형평위원과 강석희 어바인 시장을 포함해 10여명의 한인들이 출마해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고 있다.

<표 참조>

이번에도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는 한인 6명이 풀러턴과 라팔마, 부에나파크 시의원직에 각각 도전하고 있어 이들 후보를 지원하는 한인 단체들마

다 캠페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원 선거는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만큼 마켓과 교회 등에서 한인 유권자 등록에 주력하는 한편 이미 등록돼 있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선거 안내를 펼치며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LA지역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크레센타 밸리타운의 시의원직에 출마한 서영석 LA한우회장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 중이다.

◆가주 중간선거 출마 한인 후보

후보 이름	도전 지역	출마직
미셸 박	캘리포니아 3지구	조세형평국 위원 (재선)
박두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
강석희	어바인	시장(재선)
롤랜드 지	풀러턴	시의원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밀러 오	부에나파크	시의원
제리 공	부에나파크	시의원
서영석	크레센타 밸리	시의원
제임 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제니퍼 배	오클랜드	시의원

이에 대해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은 “시의원직의 경우 당선 당락에 필요한 표는 수천 표라 지역 한인 유권자

들의 지원만 받으면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며 “더 많은 한인이 당선되려면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8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한미민주당협회(KADC)는 주말동안 마켓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알렉스 차 KADC 회장은 “지난 8월부터 매 주말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통해 265명을 등록시켰다”며 “지역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인들의 표다. 남은 기간동안 500명까지 등록시켜 정치력 신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연화·이재희 기자

yhchang@koreadaily.com